

日帝時代 日式住宅의 變容을 통해 본 住樣式의 韓日 比較研究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ving style of Korea and
Japan, viewed from the transition of the
Japanese-style houses constructed in the colonial age

박 경 옥*
Park, Kyoung Ok

Abstract

The Japanese-style houses built in the colonial age have changed through extension or remodeling since Koreans started residence after the liberation of the countr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of the two nations on the living-style of the two nations from the comparative living-style viewpoint.

26 Japanese-style houses built in the Ulsan city from the Open-Port year to 1945 were studied with the field survey method. The qualitative and the quantitative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Because of new materials and conveniences, kitchen, bathroom and toilet have changed into standing-type kitchen, bathroom and bathtub of cement and tile, and flush toilet respectively. The indoor toilets were removed and outdoor ones replaced them instead.

2) In the residential space the Koreans have altered the Dadami-room to the Ondol-room because of their own heating system, installed glass or wooden doors for the separation of rooms, enlarged the indoor space through removing walls, and developed new usage of the Dokonoma space. The room of Zasaki is most frequently used as the Korean-style Anbang. The wide space called 'living room' or 'maru' near the entrance hall. In conclusion, the guest-oriented Zasaki-style plan of the Japanese-style houses has remodeled into the family oriented Anbang-style plan.

「본 논문은 1991년도 산학협동재단 학술연구비 수혜에 의해 연구되었음」

* 정회원, 울산대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근대화는 19세기 말의 강대국에 의한 강압적인 개항과 20세기 초의 일제에 의한 타율적인 것이었으므로 '근대주택'에 대한 연구도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주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연적이다. 이와 같은 근대주택에 대한 연구는 전통주택에서 현대주택으로 변화하는 과정의 연결 부분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최근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근대주택의 유형으로는 부산·마산·인천 등의 개항지를 중심으로 한 일인 거주자를 위한 일식주택과, 주택개량론과 더불어 제안된 1930년대의 日洋절충식의 문화주택, 戰時체제하의 소규모 주택으로 지어진 영단주택(1941-1945), 우리자본으로 지어진 개량 한옥 등이 있으며 이들이 우리의 현대주택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이들 중 일식주택은 1945년 해방이후 한국인이 거주하게 되어 많은 증개축을 통해 변모해 왔으며 이 과정속에서 보여지는 거주자의 개조행위를 비교주거론적인 시점에서 분석하여 보편양국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주양식의 相異性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주택형식과 거주자간의 문화적 충돌이 생길때 가장 먼저 변화하는 요소와 잔존하는 요소를 밝혀낼 수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현대주택에서의 본질적 공간요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건축된 일식 주택형식의 유형을 당시 일본내에서 보급된 중류주택의 유형과 비교하여 공간구성의 특징을 밝힌다.
- ② 일식주택의 변용을 비교주거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주택의 물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양식의 요소를 밝혀내고 한국과 일본의 주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주거 문화를 비교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주거 내부공간의 변화는 두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새로운 재료나 설비의 발달로 비교적 변화가 빨리 일어나는 부분인 취사·난방·위생공간에 해당하는 부엌·욕실·변소의 변화와, 거주자의 생활양식과 주요구에 의한 개별성의 차이로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지만 각국의 심층적 주거문화의 차이로 인하여 공간 성격이 정해져있는 방·마루 등의 거주실의 변화로 나누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변화의 요소를 위의 두부분으로 나누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요소를 찾아 내어 한일 주양식의 차이를 밝혀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개항기 이후부터 1945년까지 건축된 일식주택으로 하였으며, 기존 조사에서 누락되어 있으나 일제시대 일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울산시의 일인 거주지였던 지역에 남아 있는 일식단독주택 26호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0년 7월 6일 - 13일과 1992년 5월 1일 - 10일이다.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방법으로 일식주택 평면의 실측조사와 면접을 통한 생활조사로 하며, 실측조사의 내용은 주택평면 채취, 가구배치의 상황, 사진촬영 등이며 생활조사는 개조의 부분, 개조의 이유, 현재의 공간 사용 방법 등이다. 분석 방법은 수집된 자료의 비교 분석에 의한 질적 분석과 단순 통계에 의한 양적 분석을 병행한다.

II. 일본 중류주택의 특성과 변화

1. 19세기말- 1945년까지 일본 중류주택의 변천

에도(江戸)시대의 봉건적 사회제도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7)이후 자본주의적 사회제도로 변형되었고 도시인구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계층인 중산계급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도시전용주택은 상류계층의 '大邸宅'과 중산계급의 '중류주택', 규모가 작은 연립주택 나가야(長屋)의 3종류가 있었다. 그 중 중류주택은 봉급생활자 가족의 주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규모는 30-70평 정도이며, 그들의 출신이 士族이었다는 이유도 있으나 사회적 지위의 상

정으로써 門과 玄關을 구비하고 손님접대용 가꾸마(客間)를 갖추었다.

메이지 30년경(1897)에는 양복의 착용 등의 서양풍 생활풍속의 영향으로 주택에도 서양화가 일어났고 평면에서 和洋折衷住宅이 생겨났다. 특징으로는 현관옆에 서양식의 실을 설치하여 의자식의 응접실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의 도시 중류주택은 에도시대의 武士주택의 書院造를 기본으로 하여 자시끼(主座敷)와 쓰기노마(次の間)의 구성으로 되어있다. 자시끼는 남향으로 현관에서부터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으며 도꼬노마(床の間)¹⁾ 다나(棚)²⁾, 쇼인(書院)³⁾ 등이 장치되어 있고 천장도 고(格)천장⁴⁾으로 되어 있어 다른 실과 의장적인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쓰기노마는 자시끼의 前室역할을 하며 이 두 다다미 방이 이어져 있어 일반적으로 쓰즈끼마(續き間)라 하며 오늘날 도시주택 평면의 일반형식이 되었다(그림1). 이 주택에 나타난 생활을 포함한 공간상의 특징으로는 가꾸마(客間) 중심의接客중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실이 후스마⁵⁾나 창호지문으로 되어 있어 독립성이 결여된 것, 실간의 통행을 분리하는 통로가 없다는 것, 현관과 가꾸마(客間) 이외에는 실의 용도가 불명확하다는 것, 재래식 부엌의 설치 등이다. 이런주택에 부분적 개량이 일어나 洋風客間이 부가되어 가장의 서재나接客공간으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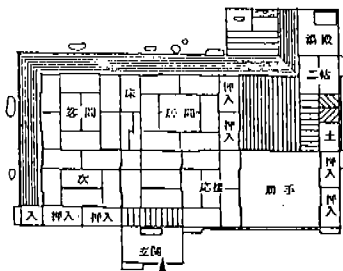


그림 1. 쓰즈끼마형주택(출처: 太田博太郎, 1969, p101)

위의 주택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형의 출현으로는 중복도형(中廊下型)을 들 수 있다(그림2). 메이지 41년(1908) 『建築雜誌』에

田邊淳吉의 주택개재를 시작으로 大正4年, 6年(1921-1923)의 주택설계 경기 입선안들은 중복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형은 이후의 시기까지 보급도가 높은 평면형이 되었다. 평면의 특징으로는 남쪽으로 洋風용접실, 主자시끼(座敷), 쓰기노마(次の間)가 배치되고, 동서축의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북측에 부엌, 욕실, 여자하인실 등의 부대실이 있다. 이 형은 그 당시 중류계층의 생활적 특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널리 보급되었다. 그 당시의 붕급생활자의 생활상의 특징을 보면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여자하인 최저 1인이 동거하여 가사일을 담당하였으며 주생활상에 길흉경사의 비중이 커서 多人數 接客행위가 많았으므로 家族과 使用人(하녀), 家族과 客과의 생활영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었다. 중복도형 주택의 성립은 변소와 욕실의 이동에 다른실을 거치지 않고 가도록 하는 동선의 문제, 하녀가 차노마(茶の間)를 거치지 않고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독립적인 동선 처리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것은 상수도과 개량변소 등의 설비의 발달과 보급으로 이들이 주택 북쪽의 중앙부에 배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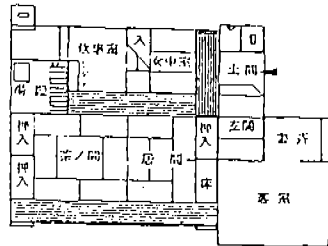


그림 2. 중복도형 주택(출처: 太田博太郎, 1969, p126)

大正時代(1916-1926)에는 본격적으로 생활개량을 목표로 한 주택개량에 대해 논해졌으며 구체적 공간에 대한 요구로는 부엌개량, 주부실·자녀실의 확립, 가족단란을 위한 이마(居間: 평면의 중앙에 오는 공간으로 현대주택의 거실과

- 2) 자시끼 장식의 실비로 도꼬노마옆 공간에의 중간 정도에 2단의 단이 틀린 판을 붙인 것.
- 3) 도꼬노마 옆의 마루측에 설치된 장식적인 창형식의 장치
- 4) 단면 2-2.5寸角의 부재를 1.5-3尺간격으로 종횡으로 짜맞춘 것으로 우리나라 우물천장과 유사
- 5) 나무로 틀을 짰 후 양면에 종이 또는 천을 바른 실내 미닫이 문

1) 폭 150-180cm, 길이 60cm로 방일부에 설치되어 족자를 걸거나 꽃꽂이와 장식물을 놓아두는 장식적인 공간으로 격식적 성격을 갖고 있다.

1877년 일본과 체결한 釜山港 租界條約에 의거, 조약상의 외국인 거주지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정되었으며, 위치는 草梁·光復洞·中央洞·東光洞 일대이다. 金泰永(1988)의 조사에서 보면 당시의 주택 중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920년-1930년대 이전 건물로 2層 木造家屋으로 상가 병용주택이었다. 일본의 商家인 마찌야(町家)를 옮겨놓은 형태로 평면보다 안쪽으로 길이가 깊은 형식으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택으로 하여 室 사이에 중복도를 설치한 것이다. 개항장의 거주지에는 순수한 주택으로서의 성격의 가옥은 드물고 무역·잡화상점이 딸린 주택형식의 공공건물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본인 관리자의 경우는 개항 이후 1900년까지는 조선 가옥이나 일인목수에 의한 목조 서양관에 거주하는 양상을 띄었으며, 그 후에는 풍토적 제약으로 인한 방한문제 등으로 조선식 온돌난방을 하였으며 벽을 두껍게 하고 창면적을 적게하여 自國의 주택과 다른 형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1920년 부터의 일본인 관사는 초기의 일식기와에서 슬레이트로 바뀌고 다시 시멘트기와로 되었고 철망식 콘크리트벽이 사용되었으며 주택양식도 日·洋절충식, 중복도식(中廊下型)의 주택영향으로 한국내에서도 같은 경향을 띄었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이주민의 격증 및 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941년 조선주택 영단의 설립과 더불어 5종의 표준 설계도면이 나타나는데 그 중 갑(20평), 을(15평)형의 단독주택은 주로 일본관리나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다. 평면의 특징은 중복도식으로, 겨울철 난방해결을 위한 온돌방 1개와 다다미방의 주거부분은 남쪽에 두고 북쪽에 종속부분인 현관, 욕실, 변소, 부엌을 집약시켰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 지어진 일식주택은 평면상으로는 일본 자국과 같은 경향의 마찌야(町家) 계통의 상가병용주택, 나가야(長室)계통의 연립주택과 일·양절충식과, 중복도식형의 단독주택 등이 건축되었으며 住戶의 배치 및 접근방식, 실구성, 구조, 설비 및 기타 세부 장식면에서 이 땅의 기후와 풍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그들의 주양식을 그대로 이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 1945년 이후 일식주택의 변화

일제시대에 일본인에 의해 지어진 주택에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어떻게 변용·적용되었는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활발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동주(1991)는 부산시의 일본인 철도공무원을 위해 지은 20평 2호 연립을 대상으로 한 결과 다다미의 온돌화, 부엌공간의 개선, 변소, 욕조동 위생공간의 위치 변경 및 개조를 들고 있으며, 정모(1992)는 진해·목포·광주·군산·대구 등에 남아있는 일식주택을 조사하여 단독주택형·상가형·연립주택으로 유형분류하고 주거공간의 변화를 한일주양식의 차이에 의한 요인, 각세대의 생활방식·주요구변화에 따른 요인, 설비의 근대화에 따른 변화로 구분한 후, 주양식에 의한 차이로 평면의 마루중심형 변화와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개실화를 분석하였다. 이영호(1988)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개화기부터 1960년대까지 건축된 목조주택을 조사하고 그 중에 일식주택도 한국도시주택의 자생적 발전의 일부분으로 보아 1960년대 이전은 보수지향적변용으로 거주면적의 중대·부엌과 다다미방의 개조·본체로 부터 변소의 분리가 나타나고, 1960년대 이후는 부엌의 입식화·욕실의 현대화·거실설치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富井는 1941년에 건축된 한국의 영단주택의 街路계획과 주택의 중개축 사항을 분석(1988)하여, 15평에서는 외부마당이 둘러 싸인 폐쇄형 마당으로 변화한 것, 평면형이 중복도형에서 마루형으로 되고, 현관 소실, 변소도 외부로 이동되어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을 하고 있으며, 단독세대에서 다세대로 변화하고 있는것을 밝혔다. 규모가 큰 20평, 15평의 단독주택의 경우 마당의 변화에 집중해서 본 연구(1989)에서는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높은 문과 담 축조, 연료저장을 위한 창고의 확대와 장독대의 설치, 부엌과 연결된 곳에 작업마당을 설치하고 있는 것 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도 일제시대 官舎가 중국인의 의자식 생활로 인하여 면적확대의 요구가 높아 증개축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대만인 고유의 생활양식을 나타내도록 주거공간 내의公私의 생활영역을 명확히 하며, 자식끼는 주침실로 사용되며, 客廳(손님접대공간)·食廳(식사공간)은 의

자식 가구가 높이고, 문은 모두 나무판문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다(郭永傑, 1986, 1987).

한다. 이 지역에는 현재에도 일식건물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1) 물리적 사항

설문 조사 및 평면 채취된 26호의 건축연대는 거주자 면담과 토지대장에 기록된 사항으로 파악했다. 시대구분은 일제기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의 기준으로 구분했는데 일반적으로 보호정치시기(1905-1910년), 무단통치시기(1910-1919년), 회유조정기(1919-1931년),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기(1931-1945년) 등으로 나누어진다. 7) 이에 따른 건축연대를 보면 1931-1945년 까지가 34.6%로 가장 많고, 1921-1930년대가 26.9%로 나타났는데 주택의 노후화로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신축으로 비교적 건축연대가 늦은 시기의 주택이 많이 남아있으며 그외에 30.8%는 해방후 양성화(무허가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허가 받음)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건축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다(표3).

주택규모는 전부 목구조로 주택내부에 기둥이 노출된 芯壁구조이며 지붕형태는 맞배지붕이나 부설지붕을 단 형태가 가장 많았고 합각 지붕, 모임지붕, 지붕 경사에 따라 꺾어진 경사 지붕이 일부 있었다. 주택규모는 30m²에서 110m²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표4).

표3. 건축연대

건축연대	사 례 수	%
1910-1920	2	7.7
1921-1930	7	26.9
1931-1945	9	34.6
미 상	8	30.8
계	26	100.0

표4 주택규모

주택규모(M ²)	사 례 수	%
30 - 50	6	23.1
50 - 70	6	23.1
70 - 90	5	19.2
90 - 110	5	19.2
110 - 130	2	7.7
130 - 150	2	7.7
계	26	100.0

7) 김운태, 「일제식민지 통치사, 현대문화사 대계6,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82, pp53.
윤정섭, 도시계획사개론, 문운당, pp107 재인용.

III. 일식주택의 분석

1. 일제시대 울산시의 일본인 거주 배경

1910년 한일합방이후 울산에 일인 거주가 증가하게 된 시기는, 1937년 중 일전쟁이후 일제가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써의 작업추진을 하게 되어 울산이 대륙의 문호로서 계획이 추진된 때로 볼 수 있다.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下關)와의 釜關連絡般路만으로는 그들의 해운 수요를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군사적 작전상에서도 한개의 항로만으로는 불안했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항만의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울산과 山口縣 油谷과의 사이에 제2의 항로 계획을 세우고 朝鮮築港株式會社에서 울산항의 축항계획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계획으로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울산도시화계획도 수립하였다고 한다.

조사자 면담결과로는 방어진은 수산 전진지역으로써 수산업이 활발하여 해방전에는 일본인이 3000명 정도 거주하였다고 한다.

표2 1941년 울산에 거주한 외국인의 수

지역구분	한국인	일본인	외국인	합	비 고
경남	2,244,377	96,770	424	2,341,531	3府(釜山, 蔚山, 慶州)19區
울산군	145,428	2,796	11	148,237	2區(蔚山, 方魚津)15面

(경남은 부산 직할시 포함이며 울산군은 現 울산시와 울주군의 合稱임)

출처 : 울산시 울산시사, 1978 p125.

1941년 당시 울산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수는 표2와 같으며 市內 中心 商業地域인 중구 성남동, 북정동, 학산동 등에는 상인과 공무원이 많이 거주하였고, 동구 방어진에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많았으며 大峴面(현재의 장생포동)에는 과수원을 경영하는 자들이 많았다고

2) 거주자의 일반사항

조사대상 26호중 1호는 최근의 이사로 거주자가 없으며 2호는 2세대가 동거하고 있어서 전체 27세대에 대해 조사하였다.

거주년수는 30년 이상이 46.9%로 가장 높았으나 반면 단기간 거주인 5년 이하도 34.4%나 되었다. 거주년수가 오래된 가구에서는 주거 변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출해 낼 수 있다. 가족수는 4명이 28.1%로 가장 높으나 3명 이하 독신의 경우가 많아서 가족수에 따른 개인실 확보에 대한 공간요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정생활 주기는 노년기가 31.3%, 초등교육기가 37.5%로 높게 나타났다.

2. 평면구성의 특성

조사주택 26호중 24호가 1층이었고 2호만이 2층이었다. 초기원형을 추적하여 평면에 a, b, c, d, 로 표기하여 구분하였는데 도쿄노마(床の間)가 설치되었고 接客공간으로 쓰이는 곳은 자시끼(座敷) a로 표기하고, 부엌에 인접해 있으면서 가족식사, 가족 모임의 공간을 짜노마(茶の間)로 하여 b로 표시하였다. a와 인접해 있어 a와 연결하여 쓸 수 있는 방을 쓰기노마(次の間) c로, 기타의 방을 d로 표시하였다.

일식주택 중에서 a의 위치는 주택에서 가장 좋은 향(남향, 남동향)에 배치되어 있고 현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전면에는 통로용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 공간의 주된 기능은 손님 접대와 家長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가족의 일상적 생활장소로 사용하지 않고 의식을 거행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4면 벽면에 있어서 도쿄노마, 쇼원(書院), 찌가이다나(違い柵), 나게시(長押)⁸⁾ 등 고유의 의장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공간과 연이어서 다다미방을 배치시킬 경우 그 방을 쓰기노마(次の間)라 하는데 자시끼와 쓰기노마 두 공간의 후스마문(종이 미닫이문) 상부에는 특징적인 요소로 란마(欄間)가 있다. 이것은 문틀 위와 천정과의 사이에 통풍과 채광을 위하여 장식적 문양의 틀을 설치한 것으로 a와 c두 공간의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자시끼 공간에서 결혼식·장례식·정월행사 등의 의식을 행할때 두 공간 사이의 문을 떼어 공간 통합을 하여 넓은 공간으로 사용한다. 현재에도 이것을 그대로 설치해 두고 있는 예가 다수 있다.

조사된 평면은 원형을 추적하여 분류해 보면 현관의 위치에 따라 남측 출입, 북측출입, 측면출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구성은 2실형에서 7실형 까지 분포되어 있다.

평면 유형은 각실이 통로없이 인접해 있어 상호개방이 가능한 집중형 평면과, 2열의 실과 실사이에 복도를 설치하거나 중복도를 설치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그림5).

1은 남쪽출입으로 상하 연속의 a,c공간이 있으며 부엌옆방이 차노마로 구성된 집중형 평면이다. 2는 좌우로 a,c의 공간구성이며 평면의 왼쪽에 시설 설비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3은 중복도형으로 a가 다다미 8장 정도를 까는 정도의 규모로 현관 입구에 독립되어 있으며 변소·욕실·부엌들의 설비공간이 좌단부에 집중되어 있고 가족생활공간과 접객공간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4는 집중형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田字形 평면과 유사하며 전면 a,c공간이 중요하게 위치한 형으로 뒤 b,d공간은 전면 a,c공간의 보조공간으로 독립성이 약하다. 5는 북쪽출입 중복도형으로 a가 독립되어 있다. 6은 남쪽에는 거주공간을 두고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 설비공간을 설치하는 공간 분리성을 가지고 있고, 7은 방의 갯수가 증가하였으나 실사용에서 다른실의 통과를 억제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도를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현관입구의 d방이 양식화 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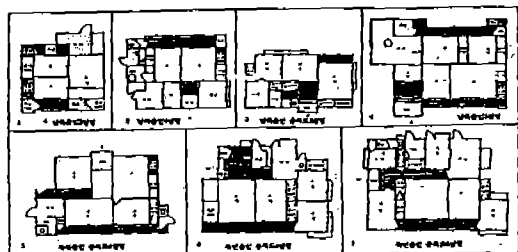


그림 5. 평면유형

8) 문틀상부의 橫部材로서 격식이 높은 실을 표시하는 지표가 됨

표 5. 평면유형 분류에 따른 호수

명	남쪽출입						북쪽출입		측면출입		이	총	
	집중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종
	2실	3실	4실	5실	3실	7실	4실	6실	4실	6실			
호수	2	5	7	1	4	1	1	1	1	1	2	26	

평면 유형분류에 의한 호수는 표5와 같다. 집중형 15호, 중복도형 9호이다. 2층형 주택 2호는 집중형 평면으로 1층에 주요거주공간과 부엌이 있고 2층에는 다다미방이 연결되어 있다.

4. 일식주택의 생활양식의 특성 및 변용

1) 생활양식

현재 주거공간에 대한 호칭과 생활을 거주자에게 물어보았을때 안방이라고부르는 경우를 A로, 거실 또는 마루로 부르는 경우를 B로 표시하였다. 앞에서 본래 일본공간성격으로 표시한 a, b, c, d와 현재사용되는 A, B의 관계는 표6과 같다.

안방(A)이 이전 a위치와 일치하는 경우는 총 9호였으며, b위치에 있는 경우는 8호, c와 a+他실에 있는 경우 각 4호, 3호, 그외 1호가 b+他실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와같이 현재사용되는 안방의 위치가 도쿄노마가 있는 a또는 a+他실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는데 (12/27호)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에서 안방의 위치가 좋은 향에 배치되며 가장 넓은 방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식주택에서 부엌옆의 식사 및 가족공간이었던 b공간이 안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8호나 있어 우리나라의 부엌공간과 안방의 인접성의 요인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6 이전평면실 위치와 현재 사용되는 안방(A)과의 관계

명	남쪽출입						북쪽출입		측면출입		이	총	
	집중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종
	2실	3실	4실	5실	3실	7실	4실	6실	4실	6실			
위치	2실	3실	4실	5실	3실	7실	4실	6실	4실	6실	형	계	
a	1	3			4		1					9	
b	1	1	2	1	2							8	
c			3							1		4	
d						1						1	
a+他실		1	1					1				3	
b+他실				1								1	
기타												1	
계	2	5	7	1	6	1	1	1	1	1	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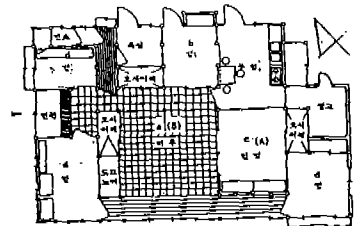
조사된 21호 중에서 거실, 마루(B)라고 호칭하는 가구는 10호로 일식주택 평면의 특징을 고려한 a, b, c, d 등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실이라는 공간과 관련해 볼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7). 그러나 거실로 사용한 9호의 경우 현관과 가까운 넓은 공간을 호칭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사례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평면 중앙에 거실 또는 마루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 평면형인 방과 방사이에 마루를 두는 양식과 유사하다.

표 7. 이전평면실 위치와 거실(B)의 위치

명	남쪽출입						북쪽출입		측면출입		이	총	
	집중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종
	3실	4실	5실	7실	6실	6실	6실	6실					
위치	3실	4실	5실	7실	6실	6실	6실	6실	6실	형	계		
a	1	1						1			3		
b	1	1									1		
c		1									1		
c'						1					1		
a+他실			1								1		
b+他실													
기타		1		1							1		
계	2	3	1	1	1	1	1	1	1	1	10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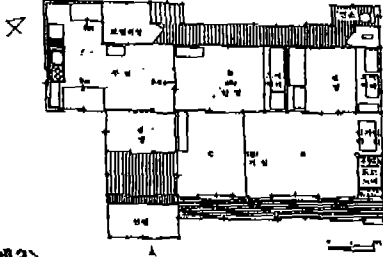
● 부엌옆의 c공간을 안방으로 사용하고 두 실 가운데 공간을 마루로 사용한 예, 평면사용 특징으로 예전의 자시키 공간을 가족모임·손님접대의 마루 공간으로 사용하며 전체구성상 마루 부분을 가운데 두어 사용하는 거실중심형 생활을 하고 있다. 방의 다다미를 전부 온돌로 바꿨으며 입식부엌; 콘크리트조의 욕실, 수세식 변소 등의 개조를 하였다.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창고만 증축하였다.



<사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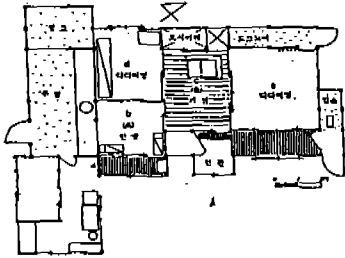
● 접객공간인 a, c를 거실로 사용하고 부엌옆의 b를 안방으로 사용한 예, 원래 평면이 田字형의 집중형이며 집 정원의 a, c공간의 앞에 조경이 잘된 정원이 배치되어 있다. a, c공간 사이에 문을 떼고 두 공간을 합해서 거실로 사용한다. 부부만 거주하므로 부엌이용의 편리성과 겨울에 난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b공간을 안방으로 사

용한다. 오시이레 부분의 문과 선반을 떼고 장을 넣었으며, 욕실 부분을 보일러실로 개조하고 부엌의 입식화, 실내수세식 변소의 개조 등을 하였다.



<사례3>

● 주택평면 중앙에 거실을 배치하고 변소를 외부 출입으로 바꾼데, 주택평면의 중앙에 거실을 두어 전통주택의 방-대청-방의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내변소를 외부에서 직접출입하도록 하였다.



(2) 공간변용의 실태

각 공간의 개조는 근대화에 따른 재료의 변화, 설비의 발달로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부엌·욕실·화장실 등의 공간과, 공간성격이 정해져 있어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며 거주자의 주요구에 따라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방·마루 등의 주요 거주실 공간 및 현관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시설 설비 공간

① 변소 - 원래변소가 실내에 있었던 경우가 25호/26호이며 이중에 폐쇄하여 쓰지않고 외부로 분리한 것은 10호이다. 따라서 현재 실내변소는 15호이며 이중 6호만이 수세식 변소이며 9호는 그대로 개래식으로 쓰고있다. 그러나 원래 실내변소의 출입구를 바꾸어 밖에서 직접 출입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표8).

이처럼 일식주택에서 내부화되어 있던 변소가 본채와 분리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초기 수세식 변소 설비가 보급되지 않았을 때

악취가 나기 때문에 변소를 본채에서 멀리 두려는 재래의 관습이 작용하였던 것이 유지된 것이며 현재는 수세식 변소 개량이 가능하여서 일부 개량하였으며 점차 수세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표 8. 변소의 변화

이전	현재		계
	실내	실외	
실내	15	10	25
실외	1		1
계	16	10	26

② 욕실 - 이전 평면에 욕실이 있는 경우는 11호이며 욕조는 물을 지퍼서 물을 덮히는 팽이형 철제 가마 형태였다. 현재 욕실 공간의 변화는 재료를 바꾸어 간이 목욕이나 세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공간과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창고 또는 보일러실로 변화시킨 경우가 있다. 원래 평면에 욕실이 없어서 물사용공간이 없는 경우는 외부공간인 마당에 세면 및 세탁장소를 만들거나 부엌 옆부분에 다용도실을 증축하는 현상도 나타났다(표9).

표 9. 시설설비, 보조공간의 변화

구분	변화	남쪽 출입						북쪽출입		이중	계
		권중형		중북도형		중북도형		이중			
		2실	3실	4실	5실	3실	7실		4실		
부엌	개축										1
	증축	1	1	1		2					5
변소	설비(수세식)				1				1		2
	출입구변경		1					1			1
	폐쇄위치변경	1	2	3				1			8
현관	면적확장				1						1
	위치변경		1					1			3
	개축							1			1
기타	증축		1		1						2
	다용도실증축		1								1
	창고 증축								1		1
	욕실 개조			1							2

③ 부엌 - 해방이후 한국인이 거주하면서 다다미방을 온돌방으로 개조함으로써 부엌에는 부뚜막 아궁이가 설치되었다고 보여진다. 현재는 배수시설의 편리를 위해 흙바닥에서 시멘트바닥으로 변화 되었으며 주생활의 변화나 설비 발달에 따라 12/26호가 입식부엌으로 개조되고 있다(표9).

(2) 거주실 및 보조공간

① 현관 - 현관이 원래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24호였으며 현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19호, 개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1호, 폐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호였다.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4호 모두 실전면에 있는 복도형 마루에서

직접 출입한다.

② 거주실의 개조(표10)는 바닥을 다다미방에서 온돌방으로 개조된 경우가 많으며, 넓은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주자의 욕구에 의해 두실을 통합하기 위해 문을 제거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을 현대적 재료인 나무문이나 나무판이 붙은 유리문으로 바꾼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現室數와 既存實數의 차이는 문 개조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주택평면 외곽부분에 콘크리트와 벽돌을 사용하여 실을 증개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나 주택난의 소산인 다세대화 등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자시끼(座數)의 도꼬노마는 현재 문갑, TV등을 놓아두는 공간이 되었으며, 각 실에 있는 오시이레(押入れ)는 원래의 용도와 동일하게 이불 및 여러가지 물건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이용되어진다.

천장의 개조는 원래 사오부찌(竿縁)천장이었으나 그위에 벽지를 도배하거나 일부 다른재료(프린트합판, 페인트 등)로 바꾸었다. 벽의 개조는 적었으며 흙벽이 손상되었을 경우 일부 보수한 정도이다.

③ 거실 - 마루나 방을 개조하여 거실공간으로 사용하며, 일부 방을 거실로 개조한 경우는 바닥의 다다미를 걷어내고 마루판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장판지를 깔 경우도 있었다(표10).

현재 생활상의 특징으로는 식사는 계절차이 없이 안방에서 이루어지며 손님접대에도 안방이 사용되어 안방중심형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란 역시 안방에서 주로 행해지고 제례공간도 안방에서 하고 있었다. 이처럼 안방이 주요공간으로써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은 전통적인 주택의 관념에서 대부분 안방을 중심으로 하는 재래의 생활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 보인다.

표 10. 거주실의 변화

공 간 변 화	형	남 쪽 용 입							북쪽용입		총 계	
		전공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중복도형		
		2실	3실	4실	5실	3실	7실	4실	6실	4실		6실
부분적면적증대		1	2		1					1		4
공간통합		2	2	1								5
공간분화				1	1					1	1	4
방	문개조	1			1							2
	벽개조(재도)	1	1	2		2	1	1				8
	바닥개조(재도)	1	2	2		1			1	1	1	10
	장축			1		2			1			5
	복도개조					1			1			2

IV. 결론

1) 19세기말부터의 일본 자국에서의 중류 주택은 에도시대의 무사주택을 기본으로 한 접객 공간 중심의 자시끼(主座敷)와 쓰기노마(次の間)의 두 실이 연속된 공간구성이 특징이며, 근대화과정을 통해 1920년경 각 실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과 실 사이에 복도를 설치하는 중복도형이 나타난다. 조사대상지의 일식주택은 건설년도에 의한 차이보다는 주택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는데 중복도형보다는 실이 통로없이 서로 인접해 있는 집중형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2) 조사한 일식주택의 공간구성은 접객의 공간인 자시끼, 자시끼와 이어서 사용하는 쓰기노마, 식사 가족모임의 공간인 찌노마(茶の間), 기타의 실동의 거주실 부분과 재래식부엌, 실내변소, 욕실, 현관 등의 부수적인 공간으로 되어 있다. 현재 거주실 부분중 안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는 자시끼가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안방을 가장 면적이 넓고, 좋은 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다음은 찌노마 공간을 안방으로 사용하였는데 부엌과 안방의 인접성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실 또는 마루로 호칭하는 공간이 있는 세대는 10호 정도이며 그 위치는 현관과 가까운 넓은 공간으로 하였으며, 주택평면 중앙에 배치하는 경우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중앙마루형의 형식과 유사하게 사용하였 다.

3) 근대화에 따른 재료 설비의 발달로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부엌, 욕실, 화장실 공간은 각각 입식부엌·수세식 변소 시멘트와 타일로 개조한 옥조동으로 변화하였다. 일식주택의 내부변소는 폐쇄하거나 외부공간에 별도로 설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전통주택에서 외부변소를 사용한 것과 관계가 있으며 수세식 설비가 도입된 후에는 실내변소로 위치 고정 이 일어난다.

4) 주거문화의 차이로 각 공간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는 거주실은 서로 다른 두 문화 충돌시 많은 변화를 일으키며 이를 통해 각국 주거공간의 독자성을 파악할 수 있다. 현관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공간이었으나 현재 도시주택

에서는 필수적인 공간으로 등장했으므로 일식주택에 있는 현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방앞의 마루로 직접진입하여 전통주거의 마당-마루-방의 진입방식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거주공간의 변화로는 난방방식의 차이에 의한 다다미방에서 온돌로의 변화, 각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각 실사이에 유리문이나 나무문 설치, 실 통합에 의한 내부공간의 확대, 도꼬노마 공간을 장식적인 공간이 아닌 실용적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등이다. 즉, 한국인 거주 이후 일식주택의 접객중심형 자시기 생활형의 평면에서 가족중심형 안방생활형의 평면으로 재구성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표11).

표 11. 일식주택에서의 주거양식변화

	일식주택	▶▶ 한국인 거주 주택
평면구성	접객형, 중부도형 프즈케마 (廳室間)	중앙마루 설치형 안방중심형
현관	있음	현관 또는 마루직접진입방식
중요공간	자시킴(座敷)	안방
바닥재도	다다미	온돌
수납	오시이데(押入れ)	장롱벽지
장식	도꼬노마(床の間)	장승, T.V대
문	후스마, 장호지문	나무문, 유리문
퇴장실	내부계곡식	내부수세식, 외부설치
욕실	평이슬형	시멘트 욕조
다용도실	없음	별도설치

참고문헌

1. 김선재, 한국근대도시 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 김태영 외, 한국 개항장의 외인관 연구 (I) 인천 제물포항,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 권 2호, 1988.4
3. 김태영 외, 한국 개항장의 외인관 연구 (II) 부산 및 마산항,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4권 3호, 1988.6
4.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일지사, 1990
5. 우동주, 일제시대 연립형관사의 공간변형에 관한 현장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7 권 6호, 1991.12, pp33-41
6. 울산시, 울산의 역사, 1978
7. 울산 문화원, 울산 울주 향토사, 1978.

8. 윤정섭, 도시계획사개론, 문운당, 1987, pp.107-161
9. 李英鎬, 開化期 以後 한국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 釜山市 木造住宅의 變容 樣相을 中心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5호 1988.10, pp59-70.
10. 정모, 증 개축을 통해 본 일식주거의 공간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1
11. 青木正夫外, 中流住宅の平面構成に關する研究 (1), 建築研究所報, 住宅普及會, 1983, pp85-95
12. 郭永傑外 5人, 增改築による住空間の變容とその要因-台灣における日本時代官舎の變容に關する研究 I, 日本建築學會 計劃系論文報告集, 1987.11 pp100-111
13. 太田博太郎編, 住宅近代史, 雄山閣, 1969.
14. 太田博太郎, 日本住宅史の研究, 巖波書店, 1984.
15. 鈴木信弘 外2人, ソウル上道洞舊營團住宅における外部空間の變容,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概集, 1989.10, pp 13-14
16. 鈴木信弘外 3人, ソウル文來洞舊營團[住宅地, 住宅]の計劃と變容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概集, 1990.10, pp13-14.
17. 富井正憲外3人, 山谷洞舊營團受託[住宅地, 住宅]の計劃とその變容について, 日本建築學會大會, 學術講演梗概集, 1990.10, pp15-16
18. 富井正憲外3人, 日本, 韓國-台灣の舊營團に關する建築學的研究, 日本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91.9, pp21-26.
18. 平井聖, 日本住宅の歴史, 日本放送出版協會, 1981.
19. 西山苑三, 日本のすまいII, 勁草書房, 1976.
20. 渡邊光雄外, 住樣式の研究-明治末期からの都市住居者の生活樣式の形成と變化について, 住宅建築研究所報, 財團法人新住宅普及會, 1981, pp337-382